

개별 맞춤형 아동 상담으로 마음 치유

용호복지관 '아이마음결힐링센터' 6월부터 심층 상담 실시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먹고살기도 힘든데 심리치료를 받는 건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 아이의 심리적 문제는 덮어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저소득층 가정의 학부모 A 씨는 자녀의 심리치료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생활고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 치료는 늘 뒷전이였다. 이처럼 저소득층 아동들은 학교생활부적응, 우울, 위축,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에 노출되기 쉽지만 환경적인 이유 혹은 경제적인 이유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인 '아이마음결힐링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해 주목된다. 지난 4월 출범식을 가진 '아이마음결힐링센터'는 6월부터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면서 아동들의 심층 상담에 들어간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는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대부분 심리치료를 대해 관심이 부족한 부모도 많고, 관심은 있으나 경제적 비용부담 때문에 치료를 꺼리는 부모들도 많다. 실제로 치료센터나 병원을 방문하면 1회당 10만원 최대 30만원까지 비용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저소득층에

게는 부담스러운 비용이 아닐 수 없다. '아이마음결힐링센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심리 치료를 주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전했다.

따라서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관심을 고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 남구 내 초등학교, 지역 아동센터, 남구정신건강증진센터, 부산시 남구희망복지지원단, 신라대학교, 위즈키즈마음상담센터 등 지역 내 각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맺었다. 또한 기관들을 직접 찾아가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4월 30일, 컨소시엄기관 출범식 및 협약식을 통해 총 15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각 기관과 학교 등으로 상담자들이 직접 찾아가거나 복지관 내로 초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 각자의 사정에 맞는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는 각 협약기관 등에서 총 50명의 아동을 추천받은 상태이며 상담 및 1차 선별검사를 진행, 이 중에서 30명을 선별해 6월부터 아동심리 전반에 걸쳐 2차 심층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나온 상담 결과를 토대로 고유현 군 아동 30명을 선정한 계획이며 이후 1대 1로 치료사와 매칭을 시켜 월 1회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1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아동들을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15개 기관과 협약, 찾아가는 상담 학부모 연계 프로그램도 실시

단순한 치료프로그램을 넘어 상담 및 학부모교육프로그램, 가족 간의 의사, 야외활동 등의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집중형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서은혜 부관장은 "현재, 각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아동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파생되어 나타나는 문제가 매우 많다. 이는 아동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가족 전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



아동(오른쪽)과 1대 1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이마음결힐링센터는 단순한 아동치료뿐 아니라 부모와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메르스 공포에 교계 복지관도 비상

서울노인복지센터 등 21개 기관 잠정휴관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확산에 대한 공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교계 복지관들도 줄줄이 휴관을 결정했다. 6월 10일 현재, 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등 교계복지관 21 곳이 휴관했으며, 32곳 복지관에서는 일부 사업에 대해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6월 9일~15일까지 잠정휴관을 결정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긴급공지를 통해 "메르스 확산 사태에 따라 긴급대책 회의를 거쳐 많은 어르신과 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잠정휴관을 결정했다"는 공지와 함께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메르스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 서울지역 노인복지관 대부분이 1주일 이상의 휴관을 결정한 상태이며 일부 시설들은 단체급식 등의 일부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메르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메르스 관련 기관별 현황을 조사하는 등 상황 파악에 나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김유민 팀장은 "현재 재단은 매일 조계종 산하 기관과의 연락을 통해 기관별 휴관, 이용자 및

기관내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유무 등을 파악하고 있다. 다행히 재단 산하기관에서는 확진 및 의심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팀장은 "서울 지역은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일부 휴관을 결정한 상태이다. 특히, 가장 위험성이 높은 무료 단체급식은 중단하고 도시락 등의 개별식사를 제공하는 방향을 유도하고 있다. 지방에

32개 기관 일부 사업 운영 중단

단체급식 대신 개인 도시락 등 지급

조계종복지재단 24시간 모니터링

서도 일부 프로그램은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대단위 인원이 참석하는 집단 프로그램은 자제를 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각 기관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실시간 주고받고 있으며 주말에도 대기조를 편성해 꾸준히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혜숙 기자

라오스에 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자비행'

로터스월드·백천재단 9일 협약식

불교계를 대표하는 국제 구호 지원 NGO 중 하나인 로터스월드와 백천문화재단이 라오스 오지에 도서관 건립을 위해 힘을 모은다.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재단법인 백천문화재단(이사장 조명하)은 6월 9일 서울 종로구 로터스월드 사무실에서 라오스 씨엥쿠앙 도 덕캄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후원 협약을 맺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재단법인 백천문화재단은 이날 도서관 건립 후원금으로 165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후원금으로 지어질 덕캄초등학교 도서관은 72㎡(약 22평) 규모로 건립되며, 마을 주민들의 기금으로 마련된 새로운 학교 부지에 들어서게 된다. 도서관은 8월부터 건축 공사를 시작해 오는 11월 완공될 예정이다.

덕캄초등학교가 있는 라오스 씨엥쿠앙 도 덕캄마을은 129가구(679명)가 살고 있으며, 수도 비엔티엔에서 차로 10시간이 소요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마을 전체 인구의 95%가 소수민족으로 전통적인 차별이 남아있고, 인근마을보다 빈곤한 환경으로 교육환경에 대한 투자가 전무한 곳이다. 실제 초등학교는 덕캄초등학교 한 곳 뿐이며, 중·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로터스월드와 백천문화재단은 6월 9일 라오스 덕캄초등학교 도서관 건립 협약을 맺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는 3km 거리의 인근 랏마을로 통학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대해 로터스월드는 "덕캄마을의 아이들은 높은 빈곤률 및 취약한 기반시설 등의 이유로 어린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도서관 신축 이후 도서관리 교육과 소수민족을 위한 문화교실 등을 지원해 교사와 학생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천문화재단이 로터스월드를 통해 빈곤 아동들의 교육시설을 지원한 것은 두 번째이며, 지난 2011년 로터스월드와 협약을 맺고 캄보디아 톤연초등학교의 도서관 건립을 지원한 바 있다. 신성민 기자

석왕사 룸비니 '원미사회복지관'으로 새 단장

7월부터 '위기가정 보호' 등 7대 사업 운영



부천 원미사회복지관 전경

고중 발달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앞두고 있다"며 그간의 진행과정을 전했다.

원미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 상호간 연대감 조성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지역복지 거점공간으로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 '무지개 빛 희망 만들기 7대 사업'이 진행된다. △위기가정 보호 △가족기능 강화 △다문화 가정 지원 △지역사회 보호 △교양문화 프로그램 △자활지원 △지역조직화를 주제로 각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급속히 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실, 요리교실, 생활문화교실, 가족교육,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문화도서관도 운영한다.

정혜숙 기자

식습관 개선사업 '건강밥상 요리경연대회'

경기도,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연성대학교가 주관·주최하는 2015 올바른식습관개선사업 '건강밥상 요리경연대회'가 연성대 식품과학관에서 진행됐다.

노년기 적극적인 식습관 개선 실천을 위해 기획된 이 행사는, 안양시 19개의 경로당 38명에게 참여하여 저염식 요리 실력을 발휘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대한노인회 안양시 동안·만안구 지회장, 동안구노인대학장,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장, 연성대학교 교수진 등 내빈과 19개 경로당 40명의 응원단 어르신들도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경연대회의 대상 수상은 영광은 석수현대홈타운 경로당(권옥금, 한옥희 어르신)에 주어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안양시 경로당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적극적인 저염식 실천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정혜숙 기자

성북노인복지관 어르신 문화나들이 실시

성북노인종합복지관 '해피 투게더, 해피 솔루션 문화나들이'를 5월 29일 실시했다.

'해피 투게더, 해피 솔루션 문화나들이'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통합 및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사회복지학, 뷰티전공학, 물리치료학, 간호학, 식품영양학 등의 전공 학생들이 월 2

회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을 방문, 전공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말벗 서비스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문화나들이를 통해 어르신과 대학생 봉사자들이 함께 뮤지컬 '점프' 퍼포먼스를 관람하면서 1~3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혜숙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연인원 4만명이 참가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찰법 명곡은 BGM ARE GUARANTEE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 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 공연 내용 : 선무도·승군의 검무·화랑의 봉술·아수라의 바라무·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힐링살풀이·불교전통무용·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공연관람·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매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3시 30분 무료 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산지원 010-2554-8100 · 울산지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 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mudo.com